

협회동정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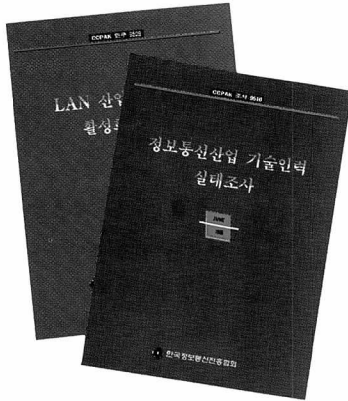
우리 협회 조사연구부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와 지난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일간 전국 4년제 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기업내 정보통신 활용과 인력 현황, 정보통신 인력 양성 현황, '95정보통신관련 인력 현황,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방안 등을 도표와 함께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인력을 학력별로 공급전망과 수요예측을 비교, 현 단계 인력활용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의 고속성장애 부응할 수 있는 기업내 인력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업체, 인력 양성기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6배판, 126쪽)

음성정보심의위원회 제3·4차 회의 개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권이현 음성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김옥순 부위원장(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김기태(한국방송공사 방송정책연구실 실장), 김남호 위원(서울공보사 대표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윤리 약식심의결과와 전화정보서비스 점검결과 등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총277건의 정보통신윤리 약식심의 중 적합 227건 보완 36

건, 부적합 14건, 총 1125건의 모니터링 실적중 42건에 대한 조치 등 심의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부의안건으로 '다이얼 북카페' 등 135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 심의가 이루어져 적합 64건, 보완 51건, 부적합 20건으로 의결됐다.

한편 지난 6월 13일 3차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윤리 심의 결과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령 선포식 및 세미나 개최를 보고한 데 이어 정보의 구성형태 및 분류체계의 능동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약식정보의 확대 검토방안 등이 논의됐다.



통계청의 정보통신 통계지정기관 지정

우리협회 조사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정보통신분야로서는 처음으로 지정 통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통계청은 지난 '95. 5. 2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사통계부의 통계능력을 인정, 이같이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그간 신뢰성있는 변변한 통계치가 없던 정보통신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통계청이 승인한 조사통계를 협회의 통계 및 문헌 DB 시스템인 CCPA-LINK 서비스를 통해 회원사를 비롯, 일반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CCPA-LINK 서비스는 현재 12종의 정보통신산업 통계 DB(문헌정보 포함)가 제공되고 있으며, WTI(세계전기통신통계), DOT(세계통화량통계)등도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조사통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1회 이사회 직제개편과 신규회원승인

우리협회는 7월 21일 제41회 이사회를 열고, 협회의 직제규정 개정안과 신규회원의 협회가입승인을 통과시켰다.

이번 직제개정에서 종전 기획조정실 소속의 정보통신윤리부를 상무이사 직속으로 편성하고, 관리과를 관리부로 확대시켜 기획조정실소속에도 두도록 했다.

한편 이번엔 신규가입된 회원사는 한국결제정보(주)(대표 : 임영규)와 (주)LG전선(대표 : 권문구), 현대정보기술(주)(대표 : 김택호), 케이디씨 정보통신(주)(대표 : 김진홍) 등 4개사이다.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제3·4차회의 개최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우리 협회회의실에서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보교사단의 성재수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불건전정보 신고접수와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등을 보고한데 이어 정보통신윤리심의 및 의결, 사후심의 처리기준의 2가지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보고했다.

보고된 사항중 사후심의 처리

◀ 우리협회는 제 41회 이사회를 7월 21일 개최했다.

▼ 심의안을 통과시키는 협회 남궁 석 회장

기준은 제출된 사후심의 기준을 사무국에서 세분화하여 추후 재검토기로 했으며 그외 성인클럽 등 성인대상 정보의 심의기준은 추후통제를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적극 대응기로 했다.

또한 '95.7.7일 개최된 제4차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 회의는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이재태 과장을 비롯,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양식의 보완문제와 인터넷 사업자 회의결과 보고로 이루어 졌다. 국제 통신망인 인터넷 내의 불건전정보 유입방지, 국내 통신망의 건전한 정보유통 정착화, 국내 불건전정보 유통의 예방조치라는 목적아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 회의는 불건전정보 방지대책(안) 및 불건전정보 방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됐다.

'96정보통신 법령해설집 (가칭) 발간준비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관련 법령을 모은 정보통신법령 해설집(가칭)을 발간한다. 정보통신관련 법령을 집대성하는 이 해설집을 오는 연말 발행할 계획이다.